



전은지역사랑봉사단, 노인취업센터에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25일 전주시 진북동 소재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북은행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기관 중 하나인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 전달됐다.

해당 센터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부족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서비스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일자리뱅크' 앱 개발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전주일자리뱅크'는 중·고령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하이브리드 매칭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성금 지원을 통해 센터는 앱 개발을 마무리하고 어르신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이윤자 센터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진,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어르신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한우협회 순창군지부, 행복나눔 한우 기탁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지부장 김유신)는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한우불고기 112.4kg(427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참석한 김유신 순창군지부 지부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한우 드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한우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의 지역을 위한 꾸준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부해 주신 한우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농협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 실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영농철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농가주부 모임 회원 등 20여명 함께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26일 무주읍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은 농가주부모임 '영농후 환경사랑 캠페인'과 연계해 폐농약용기, 폐비닐, 기타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주군 농협은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깨끗한 무주군 만들기에 힘을 계속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백산면 복지기동대, 난방텐트 설치 봉사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6일, 복지기동대가 관내 취약계층 노인 가구 28세대를 대상으로 난방텐트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난방텐트와 플리스 매트를 구입해 각 가정에 직접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난방텐트는 외풍을 차단하고 실내 온기를 유지하는 효과로 난방비 절감과 체감 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또 복지기동대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약 4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 교체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윤우상 백산면장은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술이 법정을 치유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대 김정숙 교수 초대전 열어... 민원인·직원 마음 어루만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재규)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10시 군산대학교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의 초대 개인전이 법원 1층 중앙로비와 카페에서 막을 올린 것이다. 전시는 한 달 동안 오는 12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인생 여정-축복'. 김 교수는 인생의 길 위에서 발견한 감성과 축복을 다양한 색채로 풀어내 법원을 찾는 민원인과 법원 직원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서정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은 20여 점으로 작품마다 담긴 깊이와 따뜻한 감성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다. 개막식에서 정재규 법원장은 김정숙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법원을 찾는 많은 분께 예술의 향기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법원이라는 다소 낯설고 긴장되는 공간에 예술이 스며들며, 방문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이 담겼다.

전주지방법원은 '예술 법정'을 향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내부에는 전북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회화·사예 작품 등 100여 점이 넘게 전시되어 있어 법정이라는 공식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통해 민원인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시를 연 김정숙 교수는 현재 군산대학교 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여류 예술가다. 평소 사회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북 어류화가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 전문직 여성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을 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예술은 누구에게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을 찾는 분들께 그림 한 점이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행복 빵빵 사랑빵빵' 나눔 활동 펼쳐

전북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과 우체국 FC 사랑나눔봉사단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랑의 빵 나눔회에서 '행복 빵빵 사랑빵빵'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지방우정청 직원들과 우체국 FC들이 참여해 반죽부터 굽기, 포장까지 제빵 전 과정에 직접 힘을 보탰다.

정성껏 만든 빵은 시온육아원, 원광포자원, 청소년 센터 등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돼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빵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과 도내 16개 시·군 우체국 직원들

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후원물품 지원, 어린이날 소원우체통 운영,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밀착형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통동 기관·단체들, 사랑의 쌀 기탁

남원시 도통동 기관·단체 협의회에서는 최근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kg 30포를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기부된 쌀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평소에도 이웃사랑 실천에 꾸준히 앞장서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주거

환경개선 봉사 생활 필수품 지원 등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도통동 관계자는 협의회 측에 "향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기관·단체 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리농협·NH농협 고창군지부, 김장김치 나눔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농협고창군지부, 해리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해리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이번 행사에는, 해리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80여 명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참여해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이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약 1,000포기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김갑선 조합장은 "해마다 임직원들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김장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리산낙농조합, 남원시에 백미·유제품 기부

남원시는 전북지리산낙농조합(조합장 김재욱)이 연말을 맞아 남원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의 백미와 유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낙농조합은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농업 운영 △낙농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및 지도·지원 사업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재욱 조합장은 "이번 기부가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북지리산낙농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 전북 산림환경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지난 25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립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김영태 의장은 평소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태 의장은 남원 지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건조기 산불 진화대를 직접 방문 점검,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산림 재해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소중한 산림과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남원의 푸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과 산림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공무직노조, 고향사랑 3090만원 기부

남원시는 전국공공노동조합총연맹 남원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배성춘, 이하 공무직노조) 조합원 일동이 26일 오후에 고향사랑기부금 3,0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직노조가 전달한 기부금 중 2,040만원은 강원도 화천군과의 상호기부로 추진되어, 지리적 장벽을 넘어 양 지자체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평가된다.

화천군 송용대 위원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양 조합간의 교류와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사랑의 꾸러미 지원 추진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근)는 11월 26일,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의 꾸러미' 지원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사업 지원금을 활용, 관내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 어르신 74명에게 3,700,000원 상당의 겨울 조끼와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사업.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체온유지, 동상 등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 난방비를 줄여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케이디엔텍 송기대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유)케이디엔텍 송기대 대표(전북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 26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송 대표는 "무주발전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자연특별시 무주를 응원하며, 무주군민의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오늘의 고향사랑 기부가 무주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시 소재지에 있는 (유)케이디엔텍은 상하수도과 폐수, 정수 처리 기기와 환경기계, 산업기계 등을 제작·설치하는 전문 기업이다. 무주군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2천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무주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